

거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October, 2019 | 정은숙 기자

Exhibition



박서보, '묘법(描法) No.931215'

'예술적 감흥과 70년 화업'을 보여주는 전시는 압도적인 화백의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입구부터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전쟁이 남긴 부정과 파괴를 딛고 일어나 생명을 향한 에너지를 담은 '원형질' 시기, 팝아트를 수용하고 한국적 색채로 표현한 '유전질' 시기, 독특한 작업으로 수행에 나선 '묘법'의 초기·중기·후기, 총 다섯 파트로 나누어 전시한 160여 점의 작품은 근작부터 1950년대 초기작까지 역순으로 배열되었다. 모든 작품은 고품질로 인쇄한 도록으로도, 치밀한 픽셀의 영상으로도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오라를 두르고 있었다.

'묘법' 연작은 지칠 줄 모르고 수없이 선을 그어 수직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가의 화법에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멀리서 보면 그레이·핑크·레드의 강렬함에, 다가가면 물감이 마르기도 전에 연필과 도구로 반복해서 긁어 만든 발이랑 같은 디테일에 숙연해진다. 그 앞에서 날숨이 나온다. "화면의 그 이랑은 숨 돌릴 틈이다"라는 박서보의 말을 듣고 나니 과연 그랬구나, 그 숨은 자연스레 나온 거구나 싶었다.

'중기 묘법'은 한지와 색채의 미감을 살린 것으로, 한지에 스며든 물감이 고유의 색을 호명하도록 한 작가의 수행력은 또 얼마였을까 헤아리게 만든다. '후기 묘법'은 현대 디자인이 연상되는 감렬한 미감에 절로 탄복하게 된다. 좀처럼 보기 힘든 초기 회화와 '원형질' 연작, 스프레이로 작업해 산뜻한 '유전질' 연작 등 그의 대작을 휘둘러쳐 감상하니 내가 누구인지 잊을 지경이었다. 아흔이 목전의 열정적인 현역 예술가의 작품에 몰입해 나를 잠시 잊게 된다는 것. 작가는 '묘법'이란 끝없이 반복되는 작업으로 스스로를 비워내고 자아와 자연과 경계를

〈박서보: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전에 갔다.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의 기운과 창의적 세례를 받고 싶어서다.

거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181

허물어뜨리는 작품이라 고백했다. 관람객에게 '묘법'은 감상으로써 그림과 자신의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도록 만든다.

70년 화업의 시작인 첫 작품은 전시장에 없다. 이에 관해 영상실에서 박서보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 "부산 피난 시절, 미군의 쓰레기 더미에서 레이션 박스를 뜯어다가 그림을 그렸다. 또 캔버스에 그려 전시했다고 해도 다시 캔버스를 구하기 쉽지 않아 그림 위에 야교를 칠한 뒤 긁어내고 새 작품을 그려야만 했다. 사진으로라도 남겼어야 했는데..."

한국 현대 추상미술 발전의 선구자 박서보. 1956년 반국전 선언의 주역으로 한국 미술계 관행에 저항했으며, 국내 최초의 앵포르멜 작가로 한국 미술의 세계화에 기여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단색화의 기수로 화업을 일구고 교육자이자 행정가로서 사회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금도 현역으로 작업을 늦추지 않는 그는 진정한 수행자다. 캔버스 밖으로 발산하는 색상과 언어가 아닌 작가정신, 행위, 도구의 합일을 일구는 구도의 작업가, 박서보라는 거장의 호흡을 전시 말미에서 느껴본다. 미공개 작품과 아카이브 자료까지 훑으면 단순히 관람 영역을 넘어서 경건한 의식을 치른 듯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의 자연 채광은 박서보 작품에 새로운 빛을 뿌려주었다. '후기 묘법'의 우아하고 부드러운 색채는 화이트 큐브의 창백한 빛이 아닌 자연의 것 아래에서 더더욱 빛나고 있었다. 이를 보고 있으니 나도 그 색채에 그림처럼 녹아들었다.

글: 정은숙

마음산책 대표, 시집 〈비밀을 사랑한 이유〉와 〈편지자 본투기〉 등의 저자이기도 하다.